

# OECD/DAC 고위급회의 및 DAC-EPOC(환경정책위원회) 공동 고위급회의 결과

한국국제협력단 정책연구실

‘09.5.27~28일간 연례 OECD/DAC 고위급회의(HLM)와 OECD DAC-EPOC 공동 고위급회의가 5.28~29일간 파리 OECD본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경제위기하에서의 글로벌 개발과제, DAC의 전략적 원조개혁방향 등 급변한 국제개발환경의 상황에 대한 공여국의 대응 및 주요 개발협력 이슈에 대한 논의와 함께, 개발과 환경 분야의 공동 관심의제들에 대해서도 협의하였다.

## I. OECD/DAC 고위급회의

### 1. 회의 내용

#### 1) 분쟁·취약국에 대한 일관된 접근(coherent approaches to situations of conflict and fragility)

참가국들은 분쟁·취약국에 대한 지원은 평화구축(peace building), 국가형성(state building)과 개발목표의 복합적 추진이 필요하며, 효과적 목표달성은 정치, 경제, 안보, 사법, 경찰, 무역, 이민 등 제반 유관 정책커뮤니티의 포괄적·체계적 참여가 필요하다는 범정부적 접근(whole-of-government approaches)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기초하여 논의.

토의주제는 ① OECD 국제분쟁취약네트워크(INCAF)와 여타 기구를 통한 범정부적 접근 이행방안, ② 평화구축과 국가형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집단 간 및 협력대상국과의 국제회의를 통한 협력, ③ 분쟁·취약국에 대한 국제적 개입 관련 모니터링에 범정부적 접근 연계, ④ 분쟁·취약상황에 대한 탄력적 재정 확보 등을 논의.

참가국들의 주요 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분쟁·취약국 지원에 있어 비개발(Non-Development) 커뮤니티의 일관적, 체계적, 지속적 참여 확보와 유엔 평화유지활동 및 NATO의 군사적 개입 등과 일관성 제고
- ② OECD INCAF가 전정부적 접근의 주도적 기구로서 유엔과 NATO를 포함한 여러 정책커뮤니티간 협력·조율기능을 수행하며, 다양한 정책커뮤니티가 참여하는 INCAF 고위급회의 개최를 추진
- ③ 전정부적 접근의 이행 담보를 위해 DAC의 동료검토(Peer Review)에 전정부적 접근에 대한 모니터링을 포함
- ④ 원조효과 제고에 관한 파리선언, 아크라행동계획(Accra Agenda for Action)을 전정부적 접근에 적용하며, 협력대상국의 역량을 고려하여 주인의식, 현지시스템사용 등의 원칙을 적용
- ⑤ 분쟁·취약국에 대한 지속적, 안정적 재정 지원을 위해 DAC회원국, 신흥 공여국, 기타 국가를 포함하는 국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ODA와 Non-ODA를 연계함으로써 지원 재원규모를 확대하며, 분야별 펀드(thematic fund), 다자공여국신탁기금(multi-donor trust fund) 등 설치를 검토

Deutscher DAC 의장은 회의결과를 반영한 후속조치로서 INCAF가 범정부적 접근에 관한 고위관리회의(SLM)를 개최하고, 범정부적 접근의 경험공유 활성화 및 DAC의 동료검토에 전정부적 접근을 포함하도록 하며, INCAF가 범정부적 접근에 관한 국제회의(International Dialogue) 개최를 검토하겠다고 함.

## 2) 위기하에서의 글로벌 개발과제(Global development challenge in a time of crisis)

### (1) 위기의 영향

참가국들은 경제위기의 여파와 여성 등 취약계층에 미치는 결과에 대한 실증적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경제위기가 기존의 에너지, 농업, 식량위기를 더욱 악화 또는 지속시켜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 달성이 지연될 가능성을 우려함. 또한, 위기상황 하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고용 및 고용창출 성장이 위기관리와 위기 탈출이후 개발단계에서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

저소득국들이 경기대응적(counter-cyclical) 조치로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으나, 외부의 재정지원 증가가 필요하며 양자 및 다자원조가 시의적절 하게 이러한 수요에 대응할 필요성을 지적.

## (2) 공여국의 위기대응 방향

참가국들은 기존 원조의 양적·질적 제고에 관한 공약 이행 필요성과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 장벽 거부 및 특별한 위기극복 노력의 경주 필요성에 동의.

몇몇 DAC 회원국 및 여타 공여국들의 저소득국 위기대응 지원은 무역, 이민, 투자 및 국내재원동원을 포함하는 비원조(Non-Aid) 영역을 포괄해야 하며, 위기대응이 단기 경기대응적 조치(사회안정망 구축 등)와 녹색성장 추진 등의 장기 구조적 수요 간에 균형을 유지할 필요성을 주장.

한편, 위기대응 방향은 지역별, 국가별, 커뮤니티별 차별화하고 상황에 따라 유연히 대응해야 하며, 단일한 위기 대응책(single crisis response template)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

원조효과에 관한 국제규범상의 주요 원칙(협력대상국 주인의식, 현지시스템 사용, 예측가능성 등)을 위기대응에 접목하며, 공여국간 원조조율 확대 및 조기 원조집행(front-loading)의 중요성과 원조체제 분산화를 가중시키는 특별기금 등의 설치 확산은 억제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이 일치.

우리 수석대표는 경제위기하에서의 개발재원 확대방안으로 ① 기존 원조공약의 유지와 다자기구를 통한 추가적 개발재원을 제공하고 추가재원 제공여부를 OECD 연간 ODA통계발표에 포함하는 방안, ② DAC 실시 미래 원조지출계획(future spending plan) 조사 결과와 MDG 달성 추정 소요재원 규모와의 차이를 산출하여 공여국 원조 목표 설정의 준거자료로 활용, ③ 비전통적 공여주체를 국제개발체제 내에 편입하여 글로벌 개발 거버넌스를 개선, ④ 보호주의 배경과 도하개발라운드 타결, ⑤ 원조 효과 제고를 위해 지역별, 성격별 협력체제의 병행 운영과 남남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

또한, 이번 해 OECD 각료이사회 의장국인 우리나라가 OECD 각료이사회에서 ‘개발협력선언문’(declaration on development cooperation) 채택을 추진 중이며, 이번 회의에서 DAC 행동계획 및 각료이사회에서 개발협력선언문이 채택될 경우, 위기대응 및 개발충격(development impact) 관리기구로서 DAC의 적실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발언.

## (3) DAC 행동계획 채택

참가국들은 개발커뮤니티의 글로벌 위기대응 행동방향에 관한 DAC 행동계획(action plan)을 채택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원조공약 이행: 기존 ODA 공약 재확인(특히 대 아프리카 공약 이행), 구속성 원조 압력 거부 및 정부내 개발정책일관성(PCD) 제고
- ② 위기관리를 개도국 장기성장 및 MDG 달성에 결합: 협력대상국의 위기충격 관리와 장기 개발전략을 고려한 우선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
- ③ 파리선언과 아크라행동계획을 위기대응에 접목: 위기대응에 협력대상국의 주인의식, 현지 시스템 사용, 원조 예측가능성 제고 등 원조효과 관련 원칙 반영 등
- ④ 국제대응의 예측가능성 제고: 다자기구 재원보충 시기와 규모 조정 및 다자 위기대응기금에 대한 자발적 기여의 예측가능성 유지
- ⑤ ODA와 여타 재원간 보완성 확보: 모니터링과 벤치마킹 강화 및 보완성 제고
- ⑥ 위기대응 모니터링과 책임: 협력대상국과 위기대응 모니터링 협력 및 총체적 위기대응의 일관성과 속도 점검

#### (4) 고용과 사회보호에 관한 정책문서 채택

고용과 사회보호는 빈곤층 친화적 경제성장(pro-poor growth) 달성을 위한 핵심정책이며 경기대응적 정책수단의 하나로서 MDG 목표 1 달성에 기여 가능하며, 특히 현 경제위기 상황에서 개도국 빈곤층이 가장 취약계층임을 고려하여 DAC은 고용과 사회보호에 관한 정책문서를 승인.

이 정책문서는 ① 개도국의 사회보호프로그램에 적절 하고, 장기적이며, 예측 가능한 지원 제공, ② 개도국 사회보호시스템 개발·운영 자구노력 지원 및 장기 파트너십을 통한 시스템 구축 지원, ③ 개도국의 효과적 시스템 설계·운영에 관한 지식공유 노력 지원, ④ 개도국 지하경제에 파급될 정책효과 고려 및 공식경제의 생산성과 고용촉진 지원 등, 공여국에 대한 시사점을 나타냄.

### 3) 양성평등 및 여성권익신장

MDG 목표 3 달성을 위한 공여국의 노력 확대, 공여국의 양성평등과 여성권익신장 프로그램에 아크라행동계획과 도하선언의 활용 여부, 현 위기가 여성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에 대해 토의.

참가국들은 양성평등문제는 개발에서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받지 못하였으며, 경제위기상황에서 오히려 관심 증가가 필요한 점과 현 경제위기하에서 위기에 가장 취약계층인 여성, 아동, 빈곤층에 지원노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이해를 같이 함.

그리고 개발 분야에서 성 주류화(main-streaming)는 여러 어려움이 있으나, 예산배정 확대를 통

한 주류화 노력이 중요하며, 협력대상국에 대해 양성평등과 여성권익신장 없이 개발목표 달성이 불가하며 경제위기 대응에 있어 여성 지원이 확대되어야한다는 점을 적극 인식시킬 필요성도 제기.

일부국가는 MDG 달성을 위해 ODA 분야에서 성 문제에 대한 국가행동계획 또는 양성 평등 개발계획 보유가 필요하며, ODA 관련 성 문제의 중요성 부각을 위해서는 ODA 집행기관의 주도적 추진전략과 사업시행 시 성문제 고려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필요성을 언급함.

세계은행측은 농업, 지역개발 등에서 성 주류화, 소액대출지원 증가, 여성의 시장경제활동 접근성 제고, 여성 취학 및 직업교육 제공 등 여성 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설명하였으며, 일본은 한·일 양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공동 지원한 여성 대상 직업훈련원에 대해 소개함.

우리 수석대표는 과거 한국의 개발경험 과정에서 훈련된 여성 노동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경제발전은 인력양성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하고 우리 정부가 MDG 목표 3을 포함한 양성평등 및 여성권익신장에 관한 중장기 원조전략을 수립하고, 지원확대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함. 또한 정부 내 여성부가 존재하여 성 평등에 많은 역할을 수행하는 점을 소개하고, 개도국에서도 독립적인 여성부를 설치할 경우 성 평등 달성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발언.

#### 4) DAC-EPOC 공동고위급회의 준비 : 기후변화에서 ODA 역할

이번 세션에서는 ① 협력대상국의 개발전략과 공여국간 원조조화를 고려하지 않은 개별적·독립적 기후변화기금(stand-alone climate change fund)의 확산이 전체적인 원조 효과 제고에 배치, ②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재원확보 추구로 기존 ODA 재원의 감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 ③ DAC 회원국의 UNFCCC 체제하에서 기후변화 완화와 관련한 ‘모니터링, 보고, 검증 의무이행’에 DAC의 통계보고시스템 사용 등에 관한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진행.

참가국들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 지원 관련, 파리선언의 주인의식을 비롯한 원조 효과 관련 원칙 준수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협력대상국의 개발 목표 우선순위를 고려하고, 자체적 적응 및 완화(mitigation)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논의.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민간부문 참여의 중요성에 동의하였으며, 민관 파트너십 적용 및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능력 배양은 ODA를 활용하고 완화는 민간투자를 활용하자는 의견도 제시.

회원국들은 기후변화 관련 개도국 지원은 통합적인 개발지원의 틀 속에서 다루어야 하며, DAC은

개발원조의 시각에서 기후변화 대응 관련 DAC 역할을 차별화하고 기여를 강화해야한다는 지적도 있었음. 한편, stand-alone fund의 무규율적 확산뿐만 아니라, 거대만능 펀드(super fund)의 출현도 경계해야한다는 의견도 제기.

리우마커를 OECD/DAC의 통계보고시스템으로 통합하는 방안 관련, 기존 리우마커의 주관적, 비일관적 결과물 산출 우려 등으로 인해 대체적으로 리우마커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의 적응지표 마련에 찬성.

기후변화는 기술적인 문제에 제한되지 않으며 정치적인 문제라는 시각에서 국내여론을 상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의 협력대상국이 중국과 인도로 편중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언급.

## 5) DAC의 전략적 원조개혁방향

### (1) 원조개혁 보고서 검토 · 확정

2007년 실시된 DAC 활동 심층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OECD 이사회가 DAC 역할과 구조 및 기능 등에 대해 전략적 검토 실시를 권고함에 따라 2008년 5월 DAC 고위급회의에서 DAC 원조개혁그룹이 출범하여 지난 1년간 6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작성한 ‘Investing in Development—A Common Cause in a Changing World’ 제하의 원조개혁보고서를 이번 고위급회의에 제출.

보고서는 변화하는 국제개발환경에 부응하고 DAC의 relevance 유지 · 강화를 위해 전략적 우선순위로써 ① 통계, 동료검토, 원조효과, 정책 가이드라인 수립 등 기존 핵심 분야의 강화, ② 개발협력력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 개혁과정 적극 참여, ③ 개발정책일관성 관련 활동 강화, ④ 글로벌 공공재의 개발전략 통합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개혁방향으로 ① 주요 개발이해당사자와의 관계강화, ② 이행성과 제고를 위한 조직의 구조개혁, ③ 개발원조 관련 OECD내 다른 정책분야 및 일반적 지원 확보를 위한 홍보 강화, ④ 개발관련 OECD의 일반적 활동 재검토 촉구.

### (2) 토론내용

DAC 명칭 변경 관련, DAC 의장이 DAC의 기존 명칭 유지 방안과 변경 방안(Development Policy Committee, Committee on Development, Policy 또는 Development Affairs Committee)을 제시한 바, DAC 명칭이 개발에 비해 협소한 원조개념만을 담고 있어 변경해야한다는 의견과 일부 국

가의 DAC 명칭의 brand value를 고려, 현행 명칭 유지를 선호한다는 의견이 제기.

여러 참가국들이 DAC의 전략적 우선순위인 원조효과와 동료검토, 통계 등 핵심 업무의 지속적 강화 노력 및 글로벌 공공재 공급 관련 역량강화 추진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일부 국가는 향후 DAC의 역할이 비교우위 분야를 중심으로 보다 선택적, 중점적, 전략적 접근(selective, focused, strategic approach)을 취해야할 것으로 주장함. 한편, DAC의 relevance 강화 추진 및 DAC 회원국 원조비중의 점차적 축소 등을 고려, Non-DAC 공여국과 대표적 NGO 등에 대해 적극적 관계강화를 나설 것을 주문함.

DAC 산하기구의 적극적 조직정비(streamline)를 통해 DAC과의 연계 및 조율 강화, 산하기구에 대한 통제와 지휘권 행사 강화 필요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음.

또한, 원조에서 개발로 정체성을 수정하는 만큼, 원조효과에서 개발효과로 효과성 논의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원조효과작업반의 최종 지위(DAC에서 독립 여부)에 대한 검토 촉구 의견도 제기.

DAC의 기능강화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부담 관련, 일부 국가는 자발적 기여금의 증액을 통해 충당하자는 주장을 하였으며, 글로벌공공재 공급과 기존 DAC 비교우위와의 유기적 결합 방안 강구 필요성도 제기.

우리 측은 원조개혁보고서가 DAC의 개발 분야에서의 적실성 제고가 가능하도록 향후 변화방향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보고서 채택을 지지함. 또한, DAC의 outreach 및 회원국 확대 추진을 환영하고, 우리나라가 작년에 DAC 특별검토를 수검하였으며, 회원국 가입을 추진 중인바, 한국의 경험이 향후 가입후보국에게 선례가 되기를 희망함. 그리고 글로벌 거버넌스 수립에 있어 DAC이 보완적이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청하고, 우리나라는 2010년 하반기에 HLF-4 준비회의로서 글로벌 거버넌스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를 검토 중이라고 함. 글로벌 공공재의 개발전략에 통합 관련, DAC이 OECD 내 여타 정책기관 등과 협력강화를 통해 보완적 역할 수행이 필요함을 지적.

Deutscher DAC 의장은 회의결과를 정리하면서 글로벌 공공재의 개발로 연계 강화, 원조효과의 개발효과로 수정 검토, 향후 고위관리회의(SLM)에서 DAC 조직구조의 계속 논의, DAC 명칭은 현행대로 유지, 용어소통의 순화를 통한 대중적 접근성 제고, Non-DAC 공여국에 적극적 outreach 등을 추진하기로 함.



## 2. 평가

이번 고위급회의는 국제경제·금융위기가 개도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집중 조명하고 개도국에 대한 개발원조 및 여타 non-ODA 개발재원의 위축 제어에 중점을 둬.

위기상황 하에서 빈곤층의 확산, 새천년개발목표의 차질을 최소화하는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DAC 행동계획을 채택함으로써 DAC 회원국 간 경제·금융위기의 개발위기로 전이를 차단하려는 공동의 의지를 표명하는 계기가 됨.

우리 수석대표는 한정된 개발재원의 효율적 사용 및 국제개발체제의 조율 강화에 기여하고자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선 필요성을 부각하고, 이와 관련 2010년 하반기 글로벌 거버넌스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검토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신흥공여국에서 내년도 DAC 가입 성사 시, 선진공여국 그룹에 진입하는 한국의 신흥-전통공여국 간의 교량 역할 수행을 통한 국제 기여 의지를 널리 알리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음.

이번 회의에서 작년 원조개혁그룹 출범이래 우리 측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DAC 개혁방향에 지적기여를 해온 결과물인 ‘원조 개혁 보고서’가 상정되어 DAC의 광범위한 지지 속에 채택되었으며 이사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 DAC은 대내외적으로 21세기 개발환경의 변화 속에서 개혁을 통해 국제개발 커뮤니티 내에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기능의 확대·강화 및 외부 개발 이해당사자에 대해 보다 개방된 조직으로 변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의 개시가 가능하게 되었음.

## II. DAC-EPOC 공동 고위급회의

### 1. 회의내용

#### 1) 물 공급과 위생을 위한 지속가능한 재원조달 (Sustainable financing of Water Supply and Sanitation)

신 차관은 2015년까지 수자원 관련 MDG 달성을 위해서는 개도국 내 수자원 분야 투자가 현재 80억달러 규모에서 2배 이상 증액되어야 한다는 OECD 보고서 “Managing Water for All”를 인용하면서, 향후 개도국 내 전략적 재원계획(strategic financing planning) 수립과 통합적 수자원관리(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를 위한 개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 또한, 4가지 글로벌 위기(food, fuel, finance, fresh water)중 수자원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으나 시급히 다루어져야 함을 지적.



Masaki Suzuki 일본 환경부 차관보는 OECD 국가들이 개도국의 환경친화적 개발을 촉진시켜야 하며, 일본은 11개 아시아 국가들과 수자원 및 환경 분야 D/B 구축, 능력향상을 위해 Green Asia Initiative를 추진 중임을 설명.

영국 개발협력부 Martin Dunham 국장은 수자원분야 MDG 달성이 빈곤, 교육, 양성평등 등 여타 분야 MDG 달성에 핵심요인임을 강조.

미국 대표는 저·중소득 국가의 수자원 관리를 위한 재정적 지원관련 민간부문의 적극적 참여 및 관련사업 추진시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하다고 설명.

독일, 스위스 대표는 수자원 관리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관련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바, 기술 이전, 개도국 내 능력개발 등 효율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

스웨덴 대표는 개도국 내 수자원분야 투자는 약 11배의 사회, 경제적 부가효과를 가져오는바, 고용 창출, 경기부양 기여를 강조.

## 2)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자원 조달(Financing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핀란드는 기후변화(적응, 완화) 재원조달은 개발재원조달의 큰 맥락에서 봐야하며, 개발원조에 적용되는 파리선언, 아크라행동계획 등 원조효과 규범의 동일한 적용 및 기존 원조제공 채널의 사용을 주장함. 또한, 현 금융위기를 고려하여 혁신적 재원조달의 필요성 및 기후변화와 무역정책 등의 정책일관성 제고 필요성을 강조함.

스위스는 기후변화 적응 관련 ODA의 촉매제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기후변화협약에서 제시된 “공통의 차별적인(common but differentiated)” 부담 원칙 중 공통 부담에 가중치를 두면서 비부속서 I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 비용의 부담 및 오염자 부담원칙의 적용을 제의함. 또한, OECD회원국들이 균형적 국가기후변화적응계획에 기초한 잘 조율된 기후변화 적응조치를 추진하여 개발효과 달성에 노력할 것을 권유함.

미국 대표는 신정부가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 사용을 지지하며 기후변화 대응은 선진국과 신흥공업국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중국,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과 협의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

독일 대표는 기후변화 관련 원조에 있어 협력대상국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을 공유해야 하며, 기후변화 대응에 소요되는 개발재원 확보 차원에서 각국의 ODA/GNI 0.7% 공약 준수 필요성을 강조.

EC는 기후변화가 개발의 통합된 일부분으로 아크라행동계획이 제시하는 협력대상국의 주인의식 함양 노력과 역량강화를 강조하는 한편, 기후변화전략이 예산수립 시 반영이 필요하다고 언급.

### 3) 아크라 행동계획 맥락에서 환경관리를 위한 역량 개발 및 관리체제

환경관리 역량 개발은 경제 성장의 중요한 요소로서, 농업, 에너지, 수산업 등 부문 정책에서도 환경 측면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 예시로, 네덜란드는 가나의 농업부와 환경측면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개발협력을 진행 중이다. 토의내용으로 아크라 행동계획 하에서 역량개발 강화, 개도국이 환경문제를 내재화하며 부문정책에서 환경을 우선 고려되도록 하는 지원 방안을 논의.

기조 발제로 우리 측의 이병욱 환경부차관은 좋은 환경관리는 경제성장의 기초이며, 좋은 환경관리를 위한 역량개발 투자비용은 훨씬 많은 이익을 창출하므로, 경제위기하에서 역량개발에 적극 투자 필요하다고 주장. 개발협력 활동에 환경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원조 효과를 약화시키게 되므로 환경정부서의 참여와 수원국의 주민, 지역, 이해관계자의 참여 등 AAA 측면 반영 필요성을 설명. 공여국들은 아크라 행동 계획 맥락 하에 파트너 국가들이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중요성 인식, 녹색 성장에 대한 기회, 환경에 대한 주인의식 제고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 한국은 고속성장에 따른 환경문제 극복에 강화된 인적 역량의 역할이 컸으며, 이런 경험을 아태지역에 공유하기 위해 2005년부터 UNESCAP과 함께 녹색 성장에 관한 서울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개도국의 인적 역량개발, 녹색성장 기회를 제고함.

독일 경제협력개발부의 Adolf Kloeke-Lesch 총국장은 이번 해 마다카스카르의 권력 붕괴에 따라, 불법 벌목과 불법 거래로 지역주민의 손실이 크다는 사례를 들며, 좋은 환경 거버넌스와 환경관리가 경제 성장, 빈곤 감소 등 개발목표 달성에 기여하므로, 개발협력 프로그램에 통합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 좋은 환경 거버넌스의 요건으로 계획, 재정, 농업, 수산업 등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위한 부문별 연계(cross-sector linkage), 중앙·지방정부 등 다양한 수준별 상호 작용(interaction), 정치적으로 환경 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 하천이나 강을 공유하는 것처럼 환경 자산을 공유할 수 있는 지역·국가 수준의 협력을 제시.

### (3) 주요 발언요지

UNDP는 기후변화는 시급한 문제로 기후변화 적응과 저감을 위한 능력 개발이 우선 되어야 하며, 정부는 물, 에너지 등 관련 부문을 연결(bridge)하는 역할, 조화된 접근(coordinated approach), 보다 지역적 실천이 필요하다고 주장.

캐나다 대표는 지방에서 중앙정부까지 모든 부문의 역량이 제고되어야 하며, 개발부서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 자체 능력 개발이 필요하고, 환경 내재화 노력 필요성을 제시. 또한 EU 등 지역 차원의 조직체들(regional bodies)에서도 역량 개발이 필요하다고 언급.

스웨덴은 공여국의 개발부, 환경부의 상호 협력과 파트너 국가의 환경부, 개발부도 참여하는 협력이 중요함(이태리, 슬로베니아, 스웨덴). OECD가 공여국, 파트너 국가 모두에서 개발협력과 환경이 조화(coordination)될 수 있도록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

이탈리아는 이번 해 7월 이태리 G8 정상회의에 기후변화가 의제로 포함되어 있고, 개발협력과정에 기후변화 저감과 적응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가 주요 논의사항이 될 것임. 또한 이태리는 태평양 14개 섬과 기후변화 적응 협력 사업을 수행중으로 외교부, 환경부, 호주 정부, 밀라노 지방정부가 참여.

미국은 개발협력에 환경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사업 이외에도 이를 위한 수단(tools)과 사례(evidence)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환경영향평가(EIA), 전략환경영향평가(SEA) 이외에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시행하는 규제 영향 분석 같은 수단(tool)의 개발도 요구됨.

### 4) 저탄소 개발(Low carbon development path : win-win approaches to achieve both mitigation and development objective)

신 차관은 저탄소 개발이 경제성장,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를 달성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음을 설명하고, 개도국의 저탄소 녹색 성장 지원을 위한 개발협력의 필요성을 지적함. 그리고 이번 논의가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행동 지원 및 Post-2012 기후변화체제에 대한 국제적 합의도출에 기여하기를 기대함.

Ms. Lisa Jacks 미국 환경청장은 저탄소 청정개발이 기후변화와 경제위기의 해법이자 향후 전 세계가 자원고갈로 이어질 승자 없는 경쟁(race without winner)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이라

고 지적하고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 중인 기후변화 대응 및 청정에너지 개발, 보급 정책을 설명함.

Mr. Ib Peterson 덴마크 개발협력 장관은 개도국이 청정 개발전략을 채택, 추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재정, 기술적 인센티브 제공 필요성을 강조.

### (3) 주요발언 요지

덴마크는 코펜하겐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15차 기후변화총회에서 저탄소 청정개발의 글로벌 비전이 제시되기를 희망하며, 자국이 동아프리카 국가들과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을 소개.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대표는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환경친화적 개발을 지원함에 있어 에너지뿐 아니라 산림 및 토지분야에서도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필요성을 언급.

독일은 재생에너지 분야 국제협력을 위한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가 성공적으로 설립되고 있으며,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CDM 개혁등 시장기반 메커니즘 확대를 통한 민간부문의 대규모 투자 유도 필요성을 주장.

일본은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의 감축이 요구되며, 향후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과 개발협력의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필요성을 주장.

EC대표는 2020년까지 개도국도 예상(BAU)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15~30% 감축이 요구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CDM, 부문별 크레딧 메카니즘 (Sectoral Crediting Mechanism), 탄소시장의 잠재력이 충분히 활용되어야 함을 지적.

## 5) 향후 방향(the Road Ahead)

### (1) OECD측 발언 요지

Lowrenz 환경국장은 금번회의는 발리회의로부터 이번 연말 코펜하겐 회의로 이어지는 환경관련 일련의 국제적 논의 상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회의로 평가하고, 내달 개최되는 OECD 각료이사회에서 녹색성장(Green Growth) 의제를 2시간에 걸쳐 토의할 예정이며 동 회의를 통해 녹색성장

에 관한 각료선언문이 채택될 것이 예상된다고 언급함.

Richard Carey 개발협력국장은 개발협력 분야에서 기후변화 적응 문제는 이제 매우 중요한 (critical) 의제가 되었는바, 개발협력분야에서는 기후변화 적응의 경제적 비용 및 수익을 정확히 산출하여 적절한 재원을 확보하고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간 시너지효과 확보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함.

## (2) 공동의장 종결발언 요지

신각수 차관은 공동의장 자격으로 금번회의의 성과와 향후과제에 대해 아래 요지로 종결 발언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사무국의 이행점검을 요청함.

이번 회의를 통해 개발협력과 환경커뮤니티 간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 공약을 재확인하였으며, 아크라행동계획(AAA)의 환경친화적 발전에의 적응 관련 협력대상국 주인의식 강화와 공여국간 정책조화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국내적, 국제적 정책메커니즘 마련 필요성에 대한 전반적 합의가 형성됨.

- ① 기후변화 적응의 개발협력에의 통합을 위한 정책선언 및 정책 가이드는 앞으로 OECD 국가들에게 의미 있고 효율적인 지침으로 활용되어야하며, 향후 동 가이드라인 이행 및 이에 대한 공동평가가 필요함.
- ② DAC-EPOC 공동고위급회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양분야간 협력을 지속하는 정치적 모멘텀을 제공하는 유용한 수단인 바, 지속적으로 개최되어야 함.
- ③ 이번 회의의 결과는 내달 개최되는 OECD 각료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할 것임.

## (3) 주요 토의내용 및 향후 추진과제

OECD회원국의 개발협력 및 환경부처·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DAC과 EPOC의 추진 검토과제로서 아래 우선순위 과제들을 강조함.

- OECD의 기후변화 적응 관련 활동 심화: 기후변화적응을 기존 원조방식과 환경평가과정에 통합, 기후변화 적응 평가과정, 기후변화 적응 지원 원조 tracking, 민간부문 참여강화 방안, 기후변화 적응 비용 및 경제적 측면 분석
- 개발목표의 맥락에서 온실가스 배출 및 기후변화 적응간 시너지효과 점검 및 기후변화 대응을 국가개발전략에 포함 등

- 환경적 고려를 국가·부문별 계획과 예산에 통합을 위한 역량배양에 관한 포괄적 지침 수립 및 기후변화 관련 역량배양에 노력
- 파리선언과 아크라행동계획의 맥락에서 환경 역량배양과 거버넌스에 관한 모범사례 공유

## 2. 관찰 및 평가

이번 회의를 통해 2006년도 DAC-EPOC 공동각료급회의 이후의 성과를 점검하고, OECD 국가들의 환경커뮤니티와 개발협력 커뮤니티 간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공약을 재확인함으로써, 앞으로 양 분야 간 정책공조의 기초를 확립.

앞으로 개발협력-환경 분야 뿐 아니라 여타 분야에서 분야 간 협력(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의 모범사례가 된 것으로 평가되며, 아울러 전정부적 접근(whole-of-government approach) 및 전시스템적 접근(whole-of-system approach)을 통한 정책일관성 제고의 구체 이행사례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기후변화 적응의 개발협력에 통합에 관한 정책 선언 및 가이드라인 채택으로 구체 이행방안을 마련한 것은 이번 회의의 실질적인 성과임.

우리 측은 개발협력 담당부처인 외교부와 환경담당 부처인 환경부에서 각각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고위 대표단이 참석하여 표제 고위급회의 공동의장직 수임, 제4세션에서의 선도발언 시행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OECD차원의 개발협력-환경 간 협력강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기여의지를 표명하고 이번 회의 성과제고에도 크게 기여하였음. 특히, 고위급회의 의장직 수행을 통해 금번 회의를 통해 우리 정부가 의장직을 수임한 금년도 OECD 각료이사회(MCM)에서 녹색성장(Green Growth) 등 선언문 채택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OECD 회원국 간 고위대표단 간 공감대 형성에 기여한 것도 중요한 성과중 하나인 것으로 평가됨.